다우코닝, 실리콘소재 내충격성 향상

다우코닝(Dow Corning)은 충격 보호기능이 탁월한 실리콘(Silicone) 섬유소재 <디플렉션>을 공개했다.
활동성과 고충격 완화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스포츠웨어 및 장비, 운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플렉션>은 각종 보호용 장비 및 의류의 유연성과 통기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됐으며, 패딩소재를 삽입하지 않고도 충격흡수가 가능해 신체를 보호해주는 고기능성 섬유기술로 세탁용이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섬유와 마찬가지로 재단 및 재봉이 용이해 착용감이 불편한 패딩을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다우코닝 섬유소재 사업부 아시아 총괄 민선희 이사는“ 다우코닝의 <디플렉션>은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유연성, 통기성, 세탁용이성이 뛰어나고 충격 보호기능이 탁월해 디자이너들과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제공한다 ”며,“ 부피가 크고 딱딱한 기존 보호대와는 달리 착용감이 좋고 활동성 향상과 체온조절에도 효과가 있다 ”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축구, 스노보드 등 스포츠웨어 및 장비, 운동화, 의료장비, 개인 보호기구 및 가방 등 다양한 제품에 채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0/7/19>